■ 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61-300.
http://doi.org/10.17948/kcs.2022..95.261

연길교구(延吉教區)의 교육운동
—해성학교를 중심으로—

장명선(張明善)*

목 차

1. 머리말
2. 간도 조선인 교육과 천주교회
3. 해성학교의 설립과 교육
4. 맺음말

국문초록

베네딕도회는 1921년부터 간도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천주교는 1930년대 중반에 만주국 정부로부터 만주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된다. 간도지역을 관할한 연길교구는 1939년도에 복음화율이 1,74%로 당시 조선의 전체 7교구 중에서도 가장 교세가 컸던 교구였다. 그리고 연길교구 각 본당 부속학교인 해성학교는 간도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조선인 대상의 그리스도교계 사립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길교구가 추진한 교육 사업과 가톨릭 운동의 성과였다.

그렇다면 베네딕도회가 간도에서 교육 사업을 통해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인들의 교육계 시각에서 본다면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식민지상황에서,

* 르몽드어학원 프랑스어 강사.

만주국 성립 전후 연길교구의 선교활동은 선교지와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역민들의 서구 근대문화와 모국어 교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시작된 일종의 '자선사업'이었다.

연길교구가 운영하는 선교학교에서는 성경과목을 비롯하여 모든 교과목을 각 민족의 모국어로 가르치면서 신교육과 신문화 교수를 통해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그리스도교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교육방침하에 종교교육을 통하여 지육(智育)과 덕육(德育)을 병행하는 교육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조선인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이다.

주제어: 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 연길교구, 만주(간도), 선교학교, 해성학교, 교육운동.

1. 머리말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는 1900년대 초부터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이들은 자연히 반제국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고, 조선보다는 쉽게 새로운 정보와 사상들을 접하면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았다.[1)]

간도 이주조선인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은 1905년경부터 솔선하여 상투와 편발을 버리고 신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외식으로만 신문화의 선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참다운 도덕, 예의, 박애, 한글숭상, 남녀평등" 등의 새로운 문화를 지역사회에 주도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다.[2)] 신자들은 이주하는 지역마다 청국인(淸國人)과 이교인(異敎人)의 박해를 피하여 집단부락(敎友

1) 오늘날 만주 즉 동북지방을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동북지구(東北地區)'로, 일본이나 한국 등지에서는 주로 '만주'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압록강 건너편을 서간도, 두만강 건너편을 북간도(또는 동간도, 동만주)로, 봉천성 일대와 길림성 남부를 합하여 남만주, 흑룡강성 일대와 길림성 북부를 합하여 북만주라 부르기도 한다. 흔히 간도라고 하면 북간도를 일컫는다. 1910년 만주에는 조선인이 약 20만 명, 1920년에 약 46만 명, 1930년에 약 61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북간도로의 이주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연길현과 화룡현에 주로 정착하였다(채현석, 「만주지역의 한국인 교회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3, 기독교문사, 1994, 70-72면; 윤휘탁,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2007, 10-11면).

2) 頭道溝 主任 韓神父, 「間島敎會小史」, 『가톨릭연구』 1936년 9월호, 896-907면.

村)을 형성하였고, 이 부락에는 교리(教理)와 국문(國文)을 가르치는 서당형식의 교육기관이 있었다.[3]

그로부터 약 30년 후 조선에서 보통학교 취학률이 약 25%에 불과하던 시기에,[4] 조선과 만주국 국내외 언론계는 연길교구(당시 연길지목구(延吉知牧區), 이하 '연길교구'로 표기)가 간도에서 전개한 문화 사업에 주목하기 시작한다.[5] 구체적으로는 이 교구가 설립하여 운영한 선교학교와 문맹퇴치운동에 관한 보도이다.[6] 동아일보사는 일제의 강요로 폐간되는 1940년 8월까지 연길교구 관련기사를 13건 게재했는데, 이중에서 문화 사업에 관련한 기사가 7건(교육 5건, 출판 1건, 문화 1건)을 차지한다.[7] 그리고 이 교구는

---

3) 1899년까지 싸리밭골, 호천개, 부처골에 각각 1개의 교리학교가 있었다(Olivetan Benedictine Sisters' Priory(Korea. 부산), 『은혜의 60년』, 부산: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1991, 56면에 인용된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本堂別教勢統計表』 v.1897-1904, (발행처・연도 미기재)의 보고이다).

4) 「政務總監談」, 『동아일보』, 1936.1.9.(석간), 2면5-6단.

5) 지목구(知牧區, 교황직할지구, Praefectura Apostolica)와 대목구(代牧區, 교황대리교구, Vicariatus Apostolicus)는 전교 지방이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직 교구(教區, Dioecesis)로 설정되지 않은 개별 교회를 지칭한다. 이 구역들은 교황의 이름으로 지목구장과 대목구장에 의해 통솔된다(교회법 제368조, 제371조).(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3,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1594면). 1928년에 설정된 연길지목구는 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Benediktinerkongregation von St. Ottilien(O.S.B.), 芬道會, 1884년 창설, 이하 '베네딕도회'로 표기)의 선교사들이 담당하였다. 베네딕도회는 파리외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MEP))에 이어 조선에 두 번째로 진출한 선교회이자 첫 번째 남자 수도회로, 1909년에 당시 조선교구장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閔德孝, 1854-1933) 주교의 요청으로 교육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초빙되었다. 간도지역은 1909년 9월 청일간의 간도협약이후 국제법상으로는 중국 영토이자 북만주대목구(1923년 12월 3일부터 길림대목구)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20년까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 신자들의 사목은 조선 천주교회의 관할하에 경성대목구 소속 사제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총신자수는 약 7,500명이었다('북간도에 신부 송별회', 『경향잡지』 제469호, 1921.5.15., 200면). 1920년 8월 5일자로 경성대목구에서 원산대목구가 분리 설정되면서 함경남북도가 베네딕도회에게로 사목권이 위임되었고, 이어서 1922년 3월 19일에 당시 북만주대목구 관할이었던 연길현과 의란현이 원산대목구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1922년부터 베네딕도회가 간도지역을 관할했는데, 이 지역에 이주한 조선인 신자들의 사목을 담당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인 공동체 대상의 본격적인 사목은 연길지목구가 원산대목구로부터 분립되어 간도지역의 관할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루어졌다(장명선, 「일제강점기 延吉教區의 가톨릭 운동—青年會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7,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a, 229-230면).

6) (용정), 「間島天主教 傳道 四十年祭, 今秋間島에서 擧行」, 『동아일보』, 1936.5.18.(석간), 4면10단; 主幹, 「天主教間島宣布四十週年」, 『가톨릭연구』 1936년 9월호, 894면; 『가톨릭청년』 1936년 10월호, 21면에 인용된 『間島新報』(日文)의 「間島開發의 背後에 숨은 天主教 不滅의 功績」.

1938년에 만주국 정부로부터 간도 지역사회의 발달과 근대교육에 미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8]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베네딕도회가 간도 이주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교육운동의 배경과 내용을 확인하여, 조선인들의 근대교육 수용 양상과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이 추진한 교육사업의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들이 운영한 해성학교를 중심으로 연길교구의 교육이념, 목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타 교구와 차별화되거나 특화된 연길교구 교육사업의 윤곽을 살펴볼 것이다.

연길교구의 교육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먼저 일제강점기에 만주는 '제2의 조선'으로 인식되어있었고, 조선인 사회에서 활동하던 여러 종교들 중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교육 사업을 통해 교세를 확장했던 배경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간도지역의 개척사는 이곳에 전래된 천주교 교회사와 긴밀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9] 그럼에도 지금까지 연길교구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 교구가 1946년부터 봉천(奉天, 현, 瀋陽)관구에 병합되어 한국 천주교회의 관할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내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0]

연길교구가 추진한 교육사업의 내용을 밝히는 이유 중의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국내외 조선인들의 유대 및 연대에 큰 영향을 미친 가톨릭 소년운동이 본 교구에서 운영한 선교학교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11]

---

7) 「(九) 本事主催 啓蒙運動 第一線 動靜」, 1934.8.21.(석간), 4면1단;「全土에 展開된 啓蒙戰線, 本社主催 第四回夏季啓蒙運動(十二), 1934.8.23.(조간), 5면1단;「長霖 暴風雨中에도 朝夕出席하는 熱誠, 本社主催 第四回夏期啓蒙運動(十五)」, 1934.8.30.(조간), 4면1단;「朝鮮人 敎育을 本位 延吉에 中等校新設, 벌서 基地까지 買收한다고 間島天主敎會의 計劃」, 1935.11.12.(조간), 2면7단;「가톨릭 少年(創刊號)」, 1936.4.1.(조간), 3면10단;「間島天主敎 傳道 四十年祭, 今秋間島에서 擧行(용정)」, 1936.5.18.(석간), 4면10단;「龍井 海星校 音樂團 延吉서 大盛況」, 1936.7.28.(조간), 5면10단.

8) Theodor Breher, *Erntegarben vom Acker der Yenki-Mission*, Yenki, 1937, p.19;「본사 총재 白主敎閣下의 表彰式 協化會省本部主催로」,『가톨릭소년』1938년 2월호, 20면.

9)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연변문사자료: 종교사료전집』제8집,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7, 1면.

10) 장명선, 앞의 글, 230면.

11) 가톨릭 운동(Catholic Action)은 20세기 초 로마 교황의 장려로 전 세계에서 전개된 운동으로 조선에서는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장명선, 앞

또한 신자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문맹퇴치는 가톨릭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기된 최우선적인 선행과제였다. 따라서 필자는 간도에서 조선인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연대강화 그리고 정체성 보존에 기여한 가톨릭 운동의 근간으로서 교육사업의 성격을 밝히고자한다.

연길교구의 교육활동에 관련한 연구로는 '신자전례교육활동(volksliturgisches Arbeiten)'의 측면에서 전례서의 발간과 활용을 밝힌 종교계의 연구가 있다.[12] 그리고 교육을 통한 간접선교가 지식의 축적, 생활환경의 직선적 발전에의 기여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지식 전이와 식민지권력이라는 틀 안에서 비판적으로 고찰되는 시도가 있었다.[13] 또는 재만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의 교육활동을 민족의식의 수용과 독립운동에 연결하여 조명하거나,[14]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재만조선인이 전개했던 종교운동에 접근한 연구에서 연길교구의 교육활동이 일부 소개되었다.[15]

연길교구가 운영한 선교학교와 교육내용에 관련한 연구로는,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설립된 그리스도교계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 교육내용을 고찰하여 그리스도교계 교육활동의 의의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으로 제시한 15개교 중에서 연길교구의 12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에 수록된 일부 현황만 인용되었고, 1910년대에 캐나다장로회와 예수교장로회가 설립한 은진중학교(恩眞中學校)를 비롯한 3개교의 교육활동을 주로 살펴봄으로서, 연구자가 상정한 1930년대까지 그리스도교계 학교의 교육활동을 개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6]

비교적 최근에는 만주에서 베네딕도회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교육

의 글, 2020a; 「1930년대 延吉教區의 가톨릭 少年運動—탈시시오회(Tarsitiusvereins)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59,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b.

12) 선지훈, 「'선교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선교 활동」, 『교회사연구』 2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13) 이유재, 「식민지 조선에서 분도회의 지식생산과 교육」, 『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14) 윤용복, 「간도지역 한국 천주교회의 설립과 활동」, 『간도와 한인종교』, 한국학중앙연구원, 154-177면.

15) 고병철, 『일제하 재만 한인의 종교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2009.

16) 채휘균, 「간도지역 기독교 학교 연구」, 한신대 실천신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사업을 통해서 신자공동체와 지역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재만조선인 지역사회의 일면을 일상사 연구의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7] 그러나 연구자가 주요 사료로 참고한『연대기(*Chronik*)』와『선교잡지(*Missionsblätter*)』에 수록된 내용들이 선행연구와 선교사들의 회고록 등 관련 여러 사료 및 발간물과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결과 연길교구가 추진한 교육사업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재만조선인 지역사회의 실제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중에서 일부를 지적하면, 먼저 선교활동의 토대가 되는 연길교구의 재정은 '탄탄한 경제기반'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연길교구의 열악한 재정은 교구 설정초기부터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고, 이는 1929년에 테오도로 연길지목구장이 본원(本院)의 선교총무에게 후원금을 요청하는 서한과 선교사들의 회고록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18] 그리고 만주국 건국 전후의 시기에 간도지역의 교육계에 영향을 미친 조선총독부 교육령과의 검토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간도에 천주교 전래 40주년을 기념하여 연길교구 특집호로 발간된『가톨릭연구』(1936년 9월호)와『가톨릭청년』(1936년 10월호)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조선 가톨릭계 정기간행물, 그리고 상트 오틸리엔 대수도원에서 발간한『선교잡지(*Missionsblätter,* 1887년 창간)』와 동수도원 문서고 소장의 한국관련 선교문서,『연대기(*Chronik*)』를 비롯한 선교사들과 수녀들의 보고서와 회고록,『中國朝鮮民族教育史料集』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측의 사료들을 분석할 것이다.

2. 간도 조선인 교육과 천주교회

17) Isabella Jukas,「일제 하 만주지역에서의 독일 상트 오틸리엔 베네딕트회 수도원의 활동—교육사업을 중심으로, 1921-1945년—」, 서울대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18) 테오도로 연길지목구장에 대해서는 본고의 주 39)을 참조할 것; P. THEODORUS BREHER an P. ADALRICUS MUHLEBACH, 5.5.1929., 우츠나흐 수도원(Uznach Abbey) 문서고 소장; Balduin Appelmann, *Erinnerungen an Zeit und Geschehen in der Mandschurei 1929-1952*, Aufgeschrieben zur Jahreswende 1972/1973, pp.3-5; 주성도,『하느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분도출판사, 1993, 153-154면, 194면.

1) 간도 조선인 근대교육기관 상황

1921년 베네딕도회가 간도지역에 진출했을 당시 이곳에는 조선교구의 사제들이 설립한 용정(1909), 삼원봉(1909), 팔도구(조양하, 1910) 등 세 개의 본당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 신자들의 초기 공동체는 이 본당들이 설립되기 전에 그들이 이미 설립한 학교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신자들은 동광학교(東光學校, 1904)와 서전서숙(瑞甸書塾, 1906)이 설립될 당시 화룡서숙(和龍書塾)과 삼애학교(三愛學校)라는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19]

화룡서숙(교장 김성덕)은 1904년 5월 14일 간도성(間島省) 화룡현(和龍縣) 지신사(智新社) 영암촌(英岩村)(또는 삼원봉(三元峰) 영암촌)에 설립되었다.

간도지역의 첫 천주교 신자는 김영렬(金英烈, 세례자 요한)이다. 그의 인도로 류패룡(劉覇龍, 라우렌시오)과 최규여(崔奎汝, 그레고리오)에 이어 12명이 3차례(1896년 2월, 1896년 말, 1897년 초)에 걸쳐 원산을 방문하여 원산본당 주임 브레(L.A. Bret, 白類斯, 1858-1909)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20]

---

19) 간도지역 조선인들의 초기 근대식 교육기관 중에 동광학교는 1904년 훈춘에 캐나다장로회와 조선 장로교파 인사들이 설립하였다. 이후 1906년 용정에 이상설(李相卨) 등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현재까지 학계에는 1906년에서 1911년까지 간도성내 4개현(연길현, 화룡현, 통화현, 훈춘현)에 서전서숙을 비롯하여 19개 사립학교의 현황이 밝혀진 정도이다. 그리고 이중에서 상당수 학교들이 명동서숙(明東書塾, 明東學校, 1908), 길신여학교(吉新女學校, 1910) 등 개신교와 연관이 있거나, 광성서숙(光成書塾, 光成學校, 1908), 신흥학교(新興學校, 1908) 등 군사학교의 성격을 띤 학교들이다. 1916년 12월 일본측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만조선인 학교는 개신교계 50개교와 천주교계 9개교 등 종교계에서 설립한 78개교를 포함하여 총 161개교였다. 이중에서 일제에 의해 배일주의(排日主義) 학교로 지목된 학교는 총 25개교였다. 광성학교는 1914년에 이전하여 교회당이 있는 기독교계 군사학교로 운영되었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저,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269-270면; 허청선, 강영덕 주편,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1, 연변교육출판사, 2002-2005, 36-37면, 107면, 353면).

20) 김영렬은 함경북도에서 이주하였다. 그는 스승이자 지우(知友)인 김이기(金以器, 1858.2.19.-1895.3.25.)의 훈유(訓諭)를 받아 원산에서 사목활동 중이던 베르모렐(Joseph Vermorel, 張若瑟, 1860-1937) 신부를 찾아가 교리와 기도문을 배운 뒤 1896년 5월 17일 성신강림 첨례일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동년 가을에 김영렬의 인도로 최규여, 유패룡에 이어, 1887년 봄에 브레 신부로부터 박연삼(朴連三), 조여천(趙汝天), 김성덕(金成德), 한재흥(韓在興), 지유붕(池有鵬), 최문화(崔文化), 최익세(崔益世), 김수렬(金秀烈), 김중렬(金仲烈), 이배선(李培善), 김진오(金眞五), 김창섭(金昌燮) 등 12명이 세례를 받았다. 브레 신부는 이들을 '북관(北關)의 열두(十二)종도'라

이들 중 류패용과 김성덕(金成德, 안토니오) 등이 삼원봉에 정착하여 지신사 중앙촌(知新社中央村)이라는 곳에 12칸 집을 지어 주일(主日)과 축일(祝日, 첨례(瞻禮))에는 공소(公所)로 그리고 평일에는 학교로 사용하였는데, 이 학교는 교리(教理)학교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1]

화룡서숙의 교명은 덕흥학교(德興學校, 1905)와 왕심학교(王心學校, 1932.9.)로 개명되었고, 1920년대부터 베네딕도회가 경영한 선교학교 중 하나인 대립자(大拉子)해성학교(1935. 개명)의 전신으로 발전하였다.[22] 덕흥학교는 남학교였고 여학교(교장 이태훈)는 1919년 5월 12일에 설립되어 5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후 빅토리노(Viktorinus(Thoedor) Zeileis, 徐相烈, 1888-1957) 신부가 부임하여 덕흥학교에 여학생을 편입시켜 남녀공학제로 운영하였다.[23]

실질적으로 '학교'의 명칭을 취한 초기 교육기관은 1905(또는 1906)년 용정에 설립된 삼애학교인데 설립된 지 3년 만에 폐교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학교도 전적으로 신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장(張) 고스마라는 전교회장이 교사(校舍)용도의 집을 기증하여 개교하였고, 이후 신자 김일용(金一龍)의 사택을 교사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 타대오와 한 요셉 등 몇몇 신자들이 무보수로 국문, 산술, 역사, 성교교리(聖教教理, 天主教教理) 등을 가르치며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다.[24] 그러나 삼애학교는 교리학교보다는 큰 규모이지만 정식 소학교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후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간도의 로마(Roma)로 불렸던 팔도구(八道溝,

불렀고, 이들은 연길·화룡현에 흩어져 전도하여 간도천주교회의 초석이 되었다(頭道溝 主任 韓 神父, 앞의 글, 896-907면; 韓興烈, 「延吉教區 天主教會 略史」, 『가톨릭청년』 1936년 10월호, 4-5면; 韓允勝, 「間島天主教傳來史 延吉教會의 嚆導 金以器와 그 弟子」, 동 정기간행물의 동호, 23-29면).

21) 이하의 정기간행물에는 화룡서숙이 창립된 장소가 지신사(智新社) 영암촌 또는 삼원봉 지신사 중앙촌(知新社中央村)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지신사'는 한자음이 같은 동일 지명으로 보인다(X生, 「延吉教區 各教會沿革과 現勢」, 『가톨릭청년』 1936년 10월호, 33-34면; 金炳燦, 「延吉教區의 教育事業概況」, 『가톨릭청년』 1936년 10월호, 53면).

22) 1909년에 설립된 삼원봉(영암촌)본당은 1931년 5월에 공산당의 연이은 충화 시도 및 방화로 교사(校舍)와 교회건물이 전소되자 1931년 10월 28일에 대립자(大拉子, 달라자(達羅子))로 학교를 옮겼다. 그리고 1932년에 교회와 사제관 등 부속건물도 이 지역으로 이전하였다(韓興烈, 앞의 글, 11면; 金炳燦, 앞의 글, 52-53면).

23) 「間島 英岩村教會」(完), 『가톨릭청년』 1935년 5월호, 44-47면.

24) 韓興烈, 앞의 글, 9면; X生, 앞의 글, 32면.

또는 조양하(朝陽河)) 소재의 팔도구본당이 운영한 조양학교(4년제)를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1918(또는 1917)년 1월 11일에 경성대목구 소속의 최문식(崔文植, 베드로, 1910.9.26. 부임) 주임신부가 지방 유지들과 협력하여 설립하였다. 그리고 1918년 10월 23일에 반양식 교사를 신축하여 개교하였다.[25]

2) 베네딕도회의 간도 진출

간도지역에서의 근대식 초등교육은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이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21년 용정본당에 칼리스토(Callisto(Martin) Hiemer, 任竭忠, 1884-1968) 신부, 팔도구본당에 카니시오(Canisius(Gerhard) Kügelgen, 具傑根, 1884-1964) 신부와 카누토(Canut(Benedikt) Graf des Effans d'Avernas, 羅國宰, 1884-1950) 신부가 부임하였고, 이어 삼원봉본당에는 1922년 말에 상기 언급한 빅토리노 신부가 부임하였다. 이들은 선교활동 초기 3-4년간 근대식 교육기관 건설에 주력하여 교세를 확장시켰는데, "학교는 교육열이 높은 조선인 지역사회에서 의료사업 외에 외국인들이 '배타적인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26]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본당설립과 동시에 부속학교를 건립하였고 교명을 '해성(海星)'으로 통일시켜나갔다. 칼리스토 신부는 용정본당 주임이자 간도지역 총신부(總神父, 오늘날 분원장(分院長))와 원산교구장 보니파시오(Bonifaz(Josef) Sauer, 辛上院, 1877-1950) 주교아빠스의 대리를 겸하면서 교육기관 설립에 착수하였다.

1921년 8월 29일에 설립된 용정해성학교(4년제)는 1924년 11월 말에 신자 김인학(金仁學)이 기증한 용정 새말 신시가의 광대한 부지로 성당과 학교를 이전하였다.[27] 그리고 칼리스토 신부는 용정해성학교에 이어 동년 10월

25) 頭道溝 主任 韓 神父, 앞의 글, 906면; 金炳燦, 앞의 글, 53면; 간도 팔도구 金龍泰, 「朝陽의 새姿態를 보고」, 『가톨릭연구』 1937년 2월호, 117-118면.
26) 요한네스 마르(Johannes Mahr), 『芬道通史』, 왜관수도원 옮겨 엮음, 칠곡: 분도, 2009, 893면.
27) 본당이 이전함에 따라 기존 용정남천주당(예수성심, 용정상시)은 공소로 전락하였다가 1936년 말에 발뒤노 신부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용정북천주당(그리스도 왕, 용정하시)본당에는 레지날도(Reginald(Bruno) Egner, 王默道, 1906-1975) 신부가 주임으

에 해성여학교를 따로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28]

그의 후임으로 암브로시오(Ambros(Josef) Hafner, 韓興烈, 1897-1966) 신부(1925.9.27. 부임), 콘라도(Konrad(Friedrich) Rapp, 朴敎範, 1896-1932) 신부(1931.10. 부임), 발두인Balduin(Alfons) Appelmann, 裵光被, 1901-1975) 신부(1932. 부임) 등이 부임하였다.[29]

암브로시오 신부는 기존 해성학교를 확장하여 발전시키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가톨릭 운동에 주력하였다.[30] 콘라도 신부는 훗날 연길교구 소속 신부들 중에서 가장 특출하여 신자들로부터도 영걸(英傑)이라 불리며 기대와 촉망이 컸던 인물이다. 그는 연길교구 부교구장을 겸하면서 해성학교를 개축(改築)하여 완전한 교육기관을 도모하는 한편, 암브로시오 신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단체(會)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였다. 팔도구본당의 주임으로 부임한 카니시오 신부는 본당 부설공소 10여 개소에 조양학교 분교를 설립하였다. 1923년에 그의 후임으로 부임한 안드레아(Andreas(Ludwig) Eckardt, 玉樂安, 1884-1974) 신부는 당시에도 대내외에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팔도구에서 그의 괄목할만한 사업은 교육기관과 공소의 증설로 보고된다.[31]

로 부임하였다.

28) 「용정촌 해성학교 화재」, 『천주교회보』 제22호, 1929.12.26. 2면. 중국측 사료집의 1928년도 통계에는 이 학교가 '사립해성여학교'의 교명으로 1921년 10월에 암브로시오 신부가 설립한 4년제 중등학교로 분류되어 있다(허청선, 강영덕 주편, 앞의 책, 219면, 232-233면). 그러나 암브로시오 신부는 1925년에 용정본당에 부임했고 연길교구는 중등학교를 설립하지 못했으므로, 당시 용정본당 주임 칼리스토 신부가 초등과정의 여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29) 이들 세 신부들은 1920년대 말부터 연길교구에 가톨릭 운동과 가톨릭 소년운동(전례운동)을 발전시킨 핵심 인물들이다. 관련 논문은 다음을 참조할 것: 장명선, 앞의 글, 2020a; 앞의 글, 2020b.

30) 암브로시오 신부는 이후 1934년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조선 5교구 주교회의를 통하여 연길교구 가톨릭 운동 위원으로 선거되었고, 동시에 『가톨릭소년』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31) 안드레아 신부는 1909년 조선에 파견되어 1929년에 귀국할 때까지 약 20여 년간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는 베네딕도회가 조선 천주교회사상 최초로 창설하여 운영한 사립사범학교인 숭신학교(1911-1913)의 초대 학장(Rektor)으로 임명되었고,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대학에서 미술사, 독일어, 그리스어 강의를 맡아 교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부터 원산본당과 간도지역 팔도구본당의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주력하였다. 그는 뮌헨대학에 최초로 한국학을 창설하였고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동 대학의 교수로 봉직하였다. 에카르트 신부는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창간하여 발간한 선교잡지인 *Missionsblätter* 등을 비롯한 여러 정기간행물에 조선의 문화와 관습 등 다양한 주제로 조선을 소

그는 조선인 아동뿐만 아니라 중국인 아동대상의 해성학교도 설립하였다. 그리고 부임초기부터 조양학교에 사범과를 증설하여 선교학교에 배치할 교사 양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조양학교는 1936년 전후에 팔도구해성학교로 개명되었고, 일제강점기 간도지역의 가톨릭 선교학교 가운데에 가장 규모가 큰 학교 중의 하나로 발전하였다.[32]

이 학교는 1936년 11월 1일에 6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학교를 신축하여 낙성식을 하였으며, 1937년에는 서민을 위한 선교학교로 면세가 허락되었다.[33] 1937년 6월 팔도구본당에 수녀회 분원과 진료소가 설립되어 수녀들이 파견되었을 당시, 팔도구해성학교와 해성학원의 학생 수만으로도 약 800명이었고 이 중에 80%가 가톨릭신자였다.[34]

대령동(大嶺洞, 1935년에 다조구(茶條溝)로 학교 이전)본당 경영의 해성학교도 공소 시기인 1921년에 설립되었다.[35] 당시 대령동 지역은 팔도구본당 관할지였으므로 이 학교는 팔도구본당 주임 카니시오 신부가 부근 공소에 설립한 10여개 조양학교 분교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대령동공소는 1928년 7월에 콘라도 신부가 부임하여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학교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발전하였다.

두도구(頭道溝) 지역은 공소로서 준본당(準本堂) 시기에 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두도구해성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코르비니아노(Corbinian(Johann) Schräfl, 周聖道, 1901-1990, 재임: 1929.10.4.-1931.10.1.) 신부가 부임하여

개하고 알리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국한문혼용체의 『물리학』(총2권, 경성, 1913), 『화학』(총3권, 경성, 1913)과 같은 교과서를 비롯하여 한국어, 미술, 음악, 문학, 역사, 종교 등 한국학 전반에 걸친 약 50여권의 저술을 남겼다(조효임, 「안드레 에카르트와 「코리아 심포니」」, 『음악과 민족』 8, 민족음악연구소, 1994, 102-112면; 조현범, 「분도회 선교사들의 한국 문화 연구」, 『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167-220면).

32) 間島 全元燮, 「第二 聖芬道會擔任以後」, 『가톨릭연구』 1936년 9월호, 908-929면.

33) 「교회소식: 間島 八道溝 朝陽學校 校舍新築」, 『가톨닉朝鮮』 1937년 1월호, 119면; 「간도 팔도구 조양학교 신축」, 『경향잡지』 제845호, 1937.1.12., 30면.

34)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은혜의 60년: 1931-1991』, 서울: 부산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1995, 59면; Olivetan Benedictine Sister's Priory(Korea. 부산), 앞의 책, 73면.

35) 허청선, 강영덕 주편, 앞의 책, 304면.

설립했다는 기록도 있고,[36] 1931년 10월에 암브로시오 신부가 새로 부임하여 해성소학교를 설립했다는 보도도 있지만,[37] 카니시오 신부가 팔도구본당 주임으로 있으면서 1922년 9월 1일에 설립한 학교를 더욱 정제된 학제로 발전시켰다는 의미로 이해된다.[38]

카니시오 신부는 베네딕도회원으로서는 팔도구본당을 처음으로 담당하였고 연길상시본당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간도지역 선교학교의 체계 확충에 관심을 두었던 인물이다. 카니시오 신부는 1911년에 조선에 파견되어 조선어와 생활방식에 능했고, 간도지역에서 첫 파견지인 팔도구(1921. 부임)에 이어, 팔지・육도포(1923. 부임), 훈춘(1924. 부임) 순으로 부임지마다 가장 먼저 학교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는 연길지목구가 설정되자 테오도로 브레허(Theodor(Hermann) Breher, 白化東, 1889-1950, 이하 '테오도로 신부'와 병기) 지목구장을 도와 학교 설립과 재정 관리를 담당하면서 연길교구 교육사업의 추진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39]

명월구(明月溝, 구, 甕聲撂子(옹성라자, 우출라재))해성학교도 준본당 시기에 설립되었다. 콘라도 신부가 옹성라자공소를 정식본당으로 준비하면서 학교를 설립했다는 보고도 있지만, 1924년 10월 5일에 안드레아 신부가 설립한 보

36) 주성도, 앞의 책, 206면.
37) X生, 앞의 글, 37-38면.
38) 金炳燦, 앞의 글, 53-54면.
39) 테오도로 신부는 독일 아욱스부륵(Augsburg) 교구 오토보이렌(Ottobeuren)에서 출생하였다. 1911년 10월 8일에 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성당에서 성대종신서원을 하였고, 1915년 7월 16일에 사제서품을 받은 후 뮌헨 신학연구소와 막시밀리안 대학 신학부에서 수학하였다. 이어 베를린 대학에서 중국학을 전공하면서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산스크리트어 등을 연구하였고, 1921년 봄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레오나르도(Leonhard(Karl) Weber, 劉, 1890-1924) 신부와 동년 7월 5일에 조선에 도착하였다. 조선에 도착한지 약 2개월 뒤인 9월 24일에 북간도로 출발하였고, 1921년 가을에 첫 부임지인 팔도구본당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929년 2월 5일에 초대 연길지목구장으로 임명, 1934년 8월 1일에 연길 성 십자가 수도원의 초대 아빠스로 임명, 1937년 4월 13일에 히에리타누스(Hieritanus)의 명의주교로 임명되었다. 1937년 9월 5일에 주교로 축성되었고, 1946년 4월 11일에 연길대목구 초대 주교로 임명되었다(성 베네딕도회 오딜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NECROLOGIUM*, 성 베네딕도회 왜관 성 마오로 뽈라치도 수도원, 2007, 21면; 요한네스 마르(Johannes Mahr), 앞의 책, 1792-1803면의 '연표').

록학교(保祿學校)를 증축하여 발전시킨 학교이다.[40] 그리고 이 학교의 교명은 1926년 4월 6일에 명월구해성학교로 개명되었다. 웅성라자공소는 1931년에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당시 본당 관할구역에는 6개의 학교와 14개의 분교가 있었으며 총 신자수는 약 1,700명이었다.[41]

상술한 바와 같이 베네딕도회는 1929년 중반까지 기존의 덕흥학교와 조양학교를 대립자해성학교와 조양하해성학교로 발전시키면서 용정, 다조구, 두도구, 명월구 등 4개 본당에 4년제 초등교육기관인 해성학교와 분교를 증설하여 운영하였다. 그 외 해성학교의 교명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카니시오 신부는 팔도·육도포본당에 안나여학교(安拿女學校)와 분교, 그리고 본당근교에 다두학교(多枓學校)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육도포에 이어 1년 후 1924년 훈춘본당에 부임하자마자 재학생 13명으로 여학교를 설립하였다.[42]

이 시기에 중국인 아동이나 조선인과 중국인 아동을 함께 수용하는 교육기관이 연길(연길하시), 돈화, 팔도구, 합마당, 신참 등 5개 본당에서 운영되었고, 이중에서 연길과 돈화의 두 학교는 테오도로 신부가 간도지역에서 그의 선교활동초기에 기존학교를 인수하여 확장하거나 신설한 학교이다.[43]

1929년의 통계에 따르면, 베네딕도회가 함경남북도와 간도에서 운영한 선교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간도지역에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원산교구가 설

---

40) 金炳燦, 앞의 글, 53-54면; 웅성라자에서 베네딕도회원으로서는 최초로 활동을 시작한 카니시오 신부는 1922년에 이 지역을 팔도구의 35번째 공소로 등재하였다. 이 지역은 1926년 6월에 비오 (Pius(Philipp) Emmerling, 嚴威明, 1886-1932) 신부가 본당 설립준비 소임을 받아 활동하다가 1년 후에 전임된 바 있다. 이후 콘라도 신부가 대령동본당에서 사목활동을 하면서 관할 부속공소 중에서 웅성라자공소를 임시성당(準성당)으로 정하여 관리하다가, 1931년에 이곳으로 전임하여 정식 본당으로 승격되었다(間島 全元燮, 앞의 글, 928면). 웅성라자본당은 1935년에 명월구본당으로 개명되었다(주성도, 앞의 책, 178면).

41) 金炳燦, 앞의 글, 49-55면; 명월구 일기자, 「躍進하는 명월구 교회」, 『가톨릭청년』 1936년 12월호, 27면;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함경도천주교회사 자료집 제2집: 원산교구 연대기』,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1, 92면.

42)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 앞의 책, 58면; 허청선, 강영덕 주편, 앞의 책, 468-470면(이명화, 「1920년대 만주지방에서의 민족교육운동」에 수록된 표 '1920년대 만주 지방에 설립된 종교 계통 한인 학교')을 참조할 것.

43)『가톨릭연구』 1936년 9월호, 896-936면, 976-982면; 『가톨릭청년』 1936년 10월호(연길교구 특집호), 30-55면, 68-72면;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26면; "Firmungsreise in mandschurischer Kälte", *MB* , 1940, pp.177-179.

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조선의 타 교구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많은 교육기관을 건립하여 교세확장에 성과를 거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칼리스토 신부와 안드레아 신부 등 몇 명을 제외하고 테오도로 신부를 비롯하여 간도에서 교육 사업에 활발히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연길지목구에 편입되었다.[44]

〈표 1〉 1929년(1928년 5월 1일-1929년 5월 1일), 조선교구 교육사업 현황[45]

분류	경성교구	대구교구	원산교구	평양교구	연길교구
총교우수	49,540	36,136	2,922	6,883	12,257
남학교(개소)	29	75	남녀학교6	남녀학교7	남녀학교32
남학생수	2,548	1,570	720	남녀학생855	1,044
여학교(개소)	14	37	-	-	-
여학생수	1,634	1,138	398	-	249
중등상업학교 (개소)	1	-	-	-	-
중등상업학교 학생수	300	-	-	-	-

*남녀보통학교와 중등상업학교의 통계이다.

3) 연길교구의 교육 사업과 영향

44) 연길교구는 간도성(間島省)의 화룡현(和龍), 훈춘현(薰春), 연길현(延吉), 왕청현(汪淸)과 길림성(吉林省)의 돈화현(敦化), 액목현(額穆縣), 빈강성(濱江省)의 영안현(宁安), 동령현(東營), 목단강현(牧丹江) 등 총 9개현을 관할하였다. 이 지역에서 베네딕도회는 테오도로 신부가 연길지목구장으로 임명된 1929년에 연길, 용정, 삼원봉, 팔도구, 대령동, 훈춘, 육도포, 돈화 등 총8개 본당을 관할하고 있었다. 1936년에는 연길하시, 연길상시(조선인 공동체), 용정, 대립자(전 영암촌, 삼원봉), 팔도구, 육도포, 훈춘, 다조구(전 대령동), 두도구, 명월구(옹성라자), 북합마당, 목단강(주보: 통고의 성모), 돈화, 왕청 등 총14개 본당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6년 5월 20일 공산정권에 의해서 이 교구의 중심수도원인 성 십자가 수도원(聖十字架修道院, 이하 '연길수도원'으로 표기)이 폐쇄되기 직전까지 용정상시, 신참, 도문, 삼도구, 목단강(주보: 성 바오로) 등 5개 본당이 신설되어 총19개 본당이 있었다. 연길대목구는 1946년 4월 11일 중국에 교계제도가 설정되면서 교구로 승격되었으나, 연길수도원이 폐쇄되면서 봉천관구에 병합되었다(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6134-6143면).

45) 다음 자료에 수록된 1928년 5월 1일부터 1929년 5월 1일까지 통계의 일부를 인용함: 「죠션셩교회현샹사업, 1929년(1928.5.1.-1929.5.1.)」, 『경향잡지』 제676호, 1929.12.31., 563-566면; Frumentius Renner (Hrsg). *Der fünfarmige Leuchter* (Band II), EOS Verlag Erzabtei St. Ottilien, 1971, p.421.

연길교구가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한 배경은 먼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이었다. 간도지역은 연길지목구 설정 당시부터 공산당에 의해 연길수도원이 폐쇄된 1946년까지 전 시기동안 마적과 공산당의 횡포가 극심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전역에서는 군벌통치기간동안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적 진화론, 실용주의, 공산주의 등과 같은 많은 외국 사조들이 소개되어 문화와 사상면에서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

이에 연길교구는 가톨릭 운동을 추진하여 특히 공산주의 세력의 주도로 확산된 반가톨릭주의와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가톨릭 신자들 간의 결속과 연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이들을 교육시켜서 적극적으로 전교 사업을 펼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구정책은 테오도로 신부가 연길지목구장으로 임명된 후 가장 먼저 공교청년회(公教青年會)를 활성화하여 가톨릭 운동을 추진한 정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46]

가톨릭 청년운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 천주교회에 청년회가 조직되고 회보(會報)가 발간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 천주교회가 계몽운동과 함께 가장 관심을 기울인 운동이었다. 1930년대 중반 조선 천주교회는 평양을 비롯하여 15개 지회(支會)로 구성된 '가톨릭 운동 연맹회'을 조직하여, 주요 현안으로서 신자들 대상의 교회 출판물 보급운동과 문맹퇴치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47] 이후 1937년에도 교우들 대상의 계몽운동을 시급히 추진해야할 주요 현안으로 지목하면서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기관 설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었다.[48]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청년회의 주요활동은 전교를 목적으로 평신도 회원

---

46) 장명선, 앞의 글, 2020a, 234-235면.

47)'평양교구 가톨릭 운동 연맹회'는 당시 조선 가톨릭 진행회 위원장이자 평양지목구장인 모리스(John Edward Morris, 목이세(睦怡世), 1889-1987) 주교가 가톨릭 운동을 교구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1934년 8월에 조직하였다.

48) "(…) 실시하고잇는문제 1. 계몽운동, 2. 선전운동, 3. 자선운동, 4. 교무금실시. 금년에실행할문제 1. 순회교리강습과 묵상회, 2. 교회출판물 보급운동, 3. 문맹퇴치운동."(「平壤教區 "가運聯盟" 第一回 中央委員會」, 『가톨릭연구』 1935년 2월호, 63면); 李中輔, 「가톨릭의 有效한 발전은 교육기관 施設에 있다」, 『가톨닉朝鮮』 1937년 九·十月合併號, 93-94면.

들에게 교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포교 대상자가 성경을 비롯하여 기도서와 교리서 등 교회서적들을 읽을 수 있어야 했으므로 문맹퇴치는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교육기관의 설립문제는 교황 비오 11세(Pio XI, 재위: 1922-1939)가 가톨릭 운동을 장려하면서 특히 청소년 교육에 관한 발표문을 통하여 "나는 교회나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설립할 경우, 학교를 택하리라"선포하며 국가와 교회의 미래로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주목된 움직임이었다.[49]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가톨릭계의 움직임에 따라, 간도에서 테오도로 신부의 선교활동 여정에서도 선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계몽운동에 주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50]

간도에서 베네딕도회가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선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 중에 다른 하나는, 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틸리엔 연합회가 이들의 첫 선교대상인 동아프리카인들과는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의 적극적인 서구 근대문화 수용요구를 인식하고 이에 주목하는 정황에서 엿볼 수 있다.[51] 연길지목구 설정 당시 중국은 이미 19세기 서구열강의 청조(淸朝) 공격으로 위기를 경험한 이래, 새로운 가치관 및 세계관을 수용할 필요를 절감한 시기였고, 일본의 조선 및 중국 진출은 이 지역 지역민들에게 근대적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1930년대 중후반에 중국과 만주국에서의 가톨릭 교세는 학교의 설립과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확장되고 있었다.[52]

---

49)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교회, 부모, 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대표적인 백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DIVINI ILLIUS MAGISTRI", LETTERA ENCICLICA DI SUA SANTITÀ PIO PP.XI, SULLA EDUCAZIONE CRISTIANA DELLA GIOVENTÙ, 1929.12.31.

50) 주성도, 앞의 책, 160면.

51) Georg Stenz, "Zur Missionsmethode und -lage in China", *Zeitschrift für Missionswissenschaft und Religionswissenschaft*, Jg. 15, Münster, 1925, pp.196-206; Basilius Doppelfeld (Hrsg.), "Wichtige Probleme der Heidenbekehrung", *Mönche und Missionare*, Münsterschwarzach, 1988, pp.55-82.

52) 당시 가톨릭교회는 만주지역을 봉천교구, 무순감목교구, 사평가교구, 임동(林東)감목교구, 길림교구, 차차하르감목교구, 가목사(佳木斯)교구, 열하교구, 적봉(赤峯)감목교구, 연길교구 등 10개 교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얼빈은 주교직위로 별도로 관리되었다(河村嚴, 『在滿基督教

> 작년도 가톨릭 년감에 의하면 만주국 가톨릭현세는 대교구10처에 주교4인, 교구장4인, 사제가 299인, 수사52인, 수녀288인, 신자총수 145,848인인데 예비자가 49,908인이며 소학교가 292처나되고 중학교는 7처 본방인 교직자로는 신부가 83인, 수녀121인, 수사25인, 대신학교1처, 소신학교는 7처에 학생이 455인이다. 현재정세로보면 만주국에는 가톨릭선포에 가장유망한시긔라한다.[53]

> 최근 중국 상해(上海)에서 발행하는 가톨릭년감(年鑑)에 의지하면 중국과 신흥만주국에 재작년 일년동안 입교령세자가 十만六천三백 十六명으로 작년 유월말현재 교우 총수는 二백九十三만四천一백七十五명을 돌파했다(…).[54]

따라서 테오도로 신부는 간도에서 학교교육이 중요한 선교수단임을 인식하고, 교구내 대부분의 본당에 '해성학교'라는 통일된 교명으로 보통학교와 보조교육기관으로서 해성학원 그리고 유치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55] 테오도로 신부의 교육 사업을 통한 간접선교는 당시 간도 지역민들의 교육열을 인식하여 추진된 일종의 '자선사업'의 성격을 띤 활동이었고,[56] 이러한 활동은 지역민들의 근대교육 수용요구에 호응하여 교세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57]

3. 해성학교의 설립과 교육

1) 교육이념

연길교구의 각 본당에서 운영하는 선교학교의 범주에는 보통학교(普通學校, 小學校)인 해성학교와 해성여학교, 분교(또는 공소학교(公所學校, Außenschule)) 그

現勢槪況』, 民生部厚生司2, 1940, 42-67면).

53)「世界가톨릭뉴쓰 - 滿洲國의가톨닉現勢」,『가톨릭연구』1936년 2월호, 160면.

54)「內外가톨릭放送台: 中國과 滿洲國 改宗者 十萬突破」,『가톨릭연구』1937년 5월호, 38면.

55) 「간도천주교회의 經營인 各地學校 一瞥」,『가톨릭소년』1936년 5월호, 80-81면; Olivetan Benedictine Sister's Priory(Korea. 부산), 앞의 책, 60면.

56) "(…) 날로 발달하는 간도문화에 보조를 맞추어 연길교구는 더욱더 사회사업전선에 그전도 방침을 세우게되었다. (…) 내용은 보통학교 수업과목에 종교적 색채(宗教色彩)를 가미한 교육으로 현세와 또한 후세를위해 자선사업으로 경영하는 것이다."(韓興烈, 앞의 글, 17-18면).

57) 間島 全元燮, 앞의 글, 908-929면; 韓興烈, 앞의 글, 13면; 주성도, 앞의 책, 160면.

리고 해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동 및 일반인 대상의 보조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보조교육기관(보조학교(Hilfsschule))이란 용어는 당시의 발간물에 해성학원으로 통칭되었는데, 본당에 설립된 강습소(Armenschule), 반일학교(半日學校), 야학교(Abendschule), 주일학교(Sonntagsschule), 교리학교(Katechismusschule), 교리강습소 등이 이에 속한다.[58]

베네딕도회가 담당한 원산교구와 연길교구에서는 1921년부터 자치선교구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설립한 모든 선교학교의 교명을 '해성(海星, 라틴어: Stella Maris)'으로 통일시켜나갔다. 조선 천주교회에서 이 교명의 사용은 1899년에 설립된 대구 계산동 본당 관할의 '해성제(海星齊)'라는 한문 서당이 기원으로 보인다.[59] '바다의 별'이라는 뜻의 이 용어는 가톨릭계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상징되는 삶의 여정에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예수)에게 인도하며 충실한 그리스도교인의 삶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의미를 갖는다.[60]

가톨릭 교육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화'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이 지상국가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도록 가르치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준비시켜 사도직 생활의 실천과 모범으로 인간 사회에서 구원의 누룩이 되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표방하고 있다.[61]

---

58) "Chronik von Ryongdjong(Mai 1932 bis September 1934)", *Chronik 1935*, pp.9-19; "Chronik von Täryongtong", *Chronik 1935*, pp.30-32; "Chronik von Towtaokow(Mai 1935 bis Mai 1936)", *Chronik 1937*, pp.17-18; 「간도천주교회의 經營인 各地學校 一瞥」,『가톨릭소년』 1936년 5월호, 80-81면; Olivetan Benedictine Sister's Priory(Korea. 부산), 앞의 책, 60면.

59) 한국교회사연구소 편,『한국가톨릭 대사전』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9356면.

60) "(…) 억센바람 모진비를 헷치고 나은몸 바다별(海星)의 밝혀줌을 꾸준히 따럿네 빛燦爛타 그月桂冠 螢雪의 功이여! 힘굳세라 간곳마다 사랑튼 兄님네!(…)"(1936년 용정해성학교 졸업가의 일부를 인용함: 聖準 작, 「卒業歌」,『가톨릭소년』 1936년 5월호, 14-15면). 중세초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 용어는 그리스도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고대 칭호이다. 7세기이후 Isidore de Séville(라틴어: Isidorus Hispalensis, 560(또는 570)-636)의 작품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여러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별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로 통용된다. 그리고 바다의 별은 '바다 사도직'의 수호성인이기도 하다. 또는 '안내의 별'이라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으로 이스라엘의 스텔라 마리스 수도원(Monastère Stella Maris)처럼 수도원, 교회, 학교 등의 건물에 헌정되어 이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Anthony Maas, "The Name of Mary ", *The Catholic Encyclopedia*, Robert Appleton Company, 1912).

이러한 목적 하에 1920년대 이후 베네딕도회가 그들의 새로운 선교지에서 '해성'이란 교명의 채택은 특히 간도지역에서 이들이 전개한 교육 사업의 이념과 목적이 잘 설명되는 부분이다.

신교육과 신문화 교수(教授)를 통하여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그리스도교인을 양성하고, 종교 및 신앙교육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연길교구의 교육방향은 1930년대 중반이후에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다.

> (…) 못된 主義와 그릇된 思想에 빠지기 쉬우며 달콤한 誘引에 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 君들의 처지대로 날마다 착하게 지내길 규측을 만들고 꼭 그대로 어김없이 직혀가야합니다. 이 규측 가운데는 꼭 君들의 지식과 상식(常識)을 널펴 주며 밟어나갈 길을 열어줄 좋은 신문 잡지로 어진 스승을 삼고 (…).62)

또한 "조선인들의 자의식을 고양하고,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이들이 졸업 후에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동시에 선교의 버팀목으로 성장하도록 양성"하는 것이 베네딕도회 선교학교의 공통된 목표였다.63)

2) 일반교과목의 교육내용

만주국 수립이전까지 간도소재 사립학교의 교과서와 교육내용은 경영주체와 설립이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통일된 방법으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소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중학과정에서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었다.64)

---

61)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 1965.10.28.) 8항, 〈학교 내 가톨릭 평신도의 역할〉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책, 2006, 9353면.

62) 「졸업생들에게 보내는말」, 『가톨릭소년』 1936년 5월호, 16-17면.

63) P. GREGORIUS STEGER, 30.6.1932., 가족소장 서한.

64) 만주국 수립이전까지 간도지역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 조선 민족주의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 중화민국이나 만주 군벌정부에서 설립한 중국인 공립학교, 조선총독부・남만주철도주식회사・일본영사관・일본측 이민회사 등이 설립한 일본인 공립학교와 조선인 공립학교, 러시아 측 기관(주로 하얼빈 지역)에 설립한 러시아인(러시아계 유태인 포함) 공립학교들이 있었다. 그밖에 일본인과 조선인 개인이 설립한 학교들이 있었다(이훈구, 『滿洲와 朝鮮人』, 平壤: 崇實專門學校經濟學研究室,

1910년대에 가톨릭계 사립학교에서는 성교(聖教) 또는 성경(聖經)을 가르치며 신앙적 토대위에서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대립자해성학교의 전신인 덕흥학교에서는 성경, 조선어, 역사, 산술, 이과, 지리, 초등소학, 수신, 작문, 습작, 한문, 창가, 체조 등을 교수하고 있었는데 이중에서 산술, 이과, 지리 등의 과목들이 근대지향적인 교과목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톨릭계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조선어와 조선역사가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었다.[65]

1920년대에는 일부 학교가 배일학교(排日學校)로 분류되어있었다.[66] 이 시기 명월구해성학교에서는 대한의민단(大韓義民團)에서 활동했던 박창래(朴昶來) 등이 교원으로 있었다. 그는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재만조선인 젊은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교육계로 들어갔고, 해성학교 설립초기에 나이제한 없이 10여명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시작하였다.[67]

따라서 당시 베네딕도회가 운영한 덕흥학교, 조양학교(조양양숙(朝陽養塾)), 조양여학교(조양정녀학교), 용정해성학교, 명월구해성학교, 안나여학교, 다두학교 등을 포함하여 간도지역의 가톨릭계 사립학교에서 서구의 신학문・신문화를 수용한 근대지향적 교육과 민족의 자주독립정신과 애국사상, 배일의식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민족주의 지향적 교육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육 이

1932, 230-232면; 윤휘탁, 「만주국의 조선인 학교 실태와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b, 166-168면).

65) 윤병훈,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가 한국 근대교육기관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철학 및 교육사 전공 박사학위논문, 2008, 136-137면; 전병구, 「전라북도 천주교의 근대 초등교육 연구」, 전주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46면; 허청선, 강영덕 주편, 앞의 책, 446-452면에 수록된 박주신의 글(「間島韓國人民族教育機關의 教科課程」, 『間島韓人의 民族教育運動史』, 아세아문화사, 2000).

66) 이명화, 앞의 글, 468-470면에 수록된 표를 참조할 것.

67) 間島支局 金殷鼎, 「間島巡禮 北國에서 北國으로」, 『천주교회보』 제31호, 1929.10.1., 2면; 金殷鼎, 「묵은 日記에서: 北國에서 北國으로」, 『가톨릭연구』 1936년 9월호, 982면; 「대령동 본당에 백주교환영: 환영강연회」, 『천주교회보』 제33호, 1929.12.1., 2면; 대한의민단(일명 대한민국의민단, 통칭 의민단)은 1920년 4~5월경 연길현 숭례향(崇禮鄕) 묘구(廟溝, 명월구)에서 방우룡(方雨龍)을 단장으로 천주교 신도와 항일의병을 중심으로 조직된 무장항일단체(독립군단)이다(「간도 천주교, 항일 무장 투쟁: 보훈처, 신자들이 결성한 대한의민단 활동 사료 공개」, 『가톨릭평화신문』1032호, 2009.8.23.);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녀회 역사자료실 엮음, 『길이 된 역사 1-2: 박정숙 데레사 수녀 회고록』, (발행처 미명기), 2020a, 32면.

념을 구현하기 위한 신앙적 측면의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1910년-1920년대 간도 지역 가톨릭계 조선인 학교[68]

학교명	위치	설립년월	성격	비고
德興養塾	和龍縣 智新社 英岩村	1921.7	배일학교	1904.5.14. 德興學校 설립 대립자해성학교의 전신
敎鄕學校	延吉縣 大敎洞	(?)	배일학교	1907. 교향서숙 설립 1923년 경 폐교
興東學校	延吉縣 守信社 張洞	1913.2		
光東學校	和龍縣 德新社	1914.11	배일학교	
朝陽養塾	延吉縣 八道溝	(?)		1917(1918) 설립 조양하해성학교의 전신
廣信學校	(?)	(?)		1910년대 존립
敬愛學校	延吉縣	(?)		1910년대 존립
淸東學校	延吉縣	(?)		1910년대 존립
韓成學校	延吉縣	(?)		1915. 설립
讀興書塾	琿春縣	(?)		1910년대 존립
敎鄕女學校	延吉縣 大敎洞	1921.6	대한학생광복단조직	
海星學校	延吉縣 龍井村	1921.8		용정해성학교의 전신
東明學校	延吉縣 大佛洞	1922.3		
安拿女學校	琿春縣 六道泡子	1923.2		1923. 6. 이후 설립
多科學校	琿春縣 尙義社伐發	1924.12		多科學校의 오기로 보임
朝陽女學校	延吉縣 八道溝	(?)	배일학교	1918.1.11. 조양정녀학교 설립. 1925년 말 조양하해성학교에 병합됨

*(?): 사료에 기재되지 않음.
*'비고'란은 필자가 수정, 보완한 내용.

68) 박주신과 이명화의 앞의 글에 수록된 표에서 가톨릭계 학교만을 상기 표제로 재구성함. 이 표에서 교향학교는 1907년 연길현 대교동에 설립되어 1923년 경 폐교된 교향서숙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한흥열, 「間島天主敎社會的貢獻 - 四十週年記念講演」, 『가톨릭청년』 1936년 10월호, 70면). 조양여학교는 1918년에 경성대목구 소속 최문식 베드로 신부가 팔도구(조양하)본당에 설립한 조양정녀학교로 보인다(이형우 펴냄;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편, 『눈먼 이들에게 빛을: 1909-2009 성 베네딕도회 오딜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 화보집』, 분도: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2009, 79면의 사진(조양정녀학교 체조시간, 1922년, 팔도구); "Chronik von Paltoku (1. November 1925 bis 1. Mai 1927)", *Chronik 1930*, pp.18-23; "Chronik von Ryongdjong (1. Januar 1927 bis 31. Juli 1927)", *Chronik 1928*, pp.28-29).

베네딕도회가 운영한 해성학교의 교육연한은 1925년 이전까지 4년제였다가 동년이후부터 조선총독부교육령에 따라 보통과 6년제로 개편되었다.[69] 테오도로 신부가 1922년 9월 25일자의 서한에서 팔도구 학교에서 사용할 중국 교과서를 구입하려고 연길에 왔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시기에 해성학교에서는 중국학제 및 교과목을 일부 수용하여 교수한 것으로 보인다.[70]

1925년부터는 조선의 보통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일본어로 교수했다는 보고가 있으나,[71] 만주국 성립이전까지의 교과과정은 일본식과 중국식이 혼합된 형태였다. 1926년에는 일본의 교과과정을 도입하였는데 선교학교를 졸업한 소년들을 서울에 세운 신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1929년 중국 군대가 만주를 지배할 당시에는 중국어로 교수하기도 하였다.[72] 즉 장학량이 국민당 장개석과 연합을 모색하던 1920년대 말에 동북3성에서는 중국의 새학교법으로 인해 모든 학교가 중국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했고 중국 교과과정에 따라 가르쳐야했다. 그리고 종교수업은 금지되었다.

> (…) 1. 학생 30명당 2천 엔에 해당하는 기본 자산이 요구된다. 2. 교장은 중국인이어야 한다. 3. 중국어가 주요 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 가톨릭 학교가 문을 닫지 않으려면 중국 정부의 요구에 맞춰 교과과정을 개정해야한다.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일부 학교 단체의 반대로 실패한바있다.[73]

만주사변(1931.9.18.) 이후 설립된 거의 모든 학교들은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을 따르고 있었다.[74] 193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학제 개편이 이루어지자 모든 학생들은 한 학년씩 내려갔고, 해성학교에서는 조선총독부령 보통학교 교과목으로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교과서(소학과(小學科))를 사용해

---

69) 金炳燦, 앞의 글, 50면.
70) P. THEODORUS BREHER an Sr. AMARANTHA BREHER, Fortsetzung des Briefes vom 26.9.1922., Kuktajaka 28.9.1922., 상트 오틸리엔 대수도원 문서고 소장.
71) 金炳燦, 앞의 글, 49-51면; 고병철, 앞의 책, 162면.
72) 주 68)의 글(*Chronik 1930*); "Chronik von Paltoku (1. Juni 1927 bis 1. Juni 1930)", *Chronik 1930*, pp.17-26.
73) 앞의 글(1927 bis 1930), p.23.
74) 윤휘탁, 앞의 글, 2016b, 170면.

야했다. 따라서 교과목 구성은 시기별로 변동사항이 있으나 교과영역은 크게 수신, 언어(일본어, 조선어, 한문), 산술, 이과, 예체능(체조, 창가, 도화), 직업, 역사지리 영역을 따랐을 것으로 판단된다.[75] 그리고 1938년부터 신학제가 실시되면서 일본어가 만주국 '국어(國語)'의 하나로 격상되었다.[76]

3) 특별교과목의 교육내용

연길교구의 종교교육은 해성학교와 해성학원을 비롯한 모든 선교학교에서 이루어졌다. 해성학교에서는 조선총독부 보통학교 과정에 특별교과목으로 성경(聖經, 聖書)과목이 추가되어 종교수업(교리교육)을 실시하였다.[77] 이 수업은 조선어로 진행되었고, 유치원에서도 언문(한글)과 성경을 가르쳤다.[78] 선교학교에서 종교과목은 신자 및 이교인 학생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했고 일 년에 두 번 치르는 학교 시험에도 성경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했다.[79]

---

75) 일제강점기 보통학교(초등교육) 교과목은 제1차 조선교육령기(1911년), 제2차(1922년), 제3차(1938년), 제4차(1943년)의 과정으로 제·개정되었다. 연길교구 관할시기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다음 논문의 '〈표 5〉 일제 강점기 교과목 및 교과목명과 교과순서'를 참고하여 일부 재인용 및 재구성함: 강명숙,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 체계와 초등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사학연구』 20, 교육사학회, 2010, 4면, 10면.

시기	교과목명
제2차 조선교육령 (1922-1937년)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일본역사(1927년, 국사로 변경), 지리, 이과, 직업(1929년 신설), 도화, 창가, 체조, 재봉(1929년, 가사 및 재봉으로 변경, 여자과목), 수공(수의과목, 남녀공통), 농업·상업(1926년, 수의과목 삭제), 한문(수의과목)
제3차 조선교육령 (1938-1942년)	수신, 국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수공(남자과목), 창가, 체조, 가사 및 재봉(여자과목), 조선어(수의과목)
제4차 조선교육령 (1943년 이후)	국민과(수신, 국어, 국사, 지리), 리수과(산수, 이과), 체련과(체조, 무도), 예능과(음악, 습자, 도화·공작(공동운영, 성별운영), 가사·재봉(공동운영), 직업과(공동운영: 농업, 공업, 상업, 수산), 조선어(수의과목)

76) 윤휘탁, 「만주국의 교육 이념과 조선인 교육」, 『中國史硏究』 104, 중국사학회, 2016a, 193-194면.

77) 허청선, 강영덕 주편, 앞의 책, 300-307면; 고병철, 앞의 책, 162면; 다나카 류이찌(田中隆一), 「일제의 '만주국 통치와 재만한인' 문제」, 『만주연구』, 만주학회, 2004, 104-106면.

78)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 앞의 책, 18면.

79)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녀회 역사자료실 엮음, 『길이 된 역사 2-1: 만주에서의 선교체험들』, (발행처 미명기), 2019b, 41면.

(1) 종교교육의 목적

이에 연길교구에서는 지목구 설정초기에 학부모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소책자를 발간하여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와 목적을 밝힌바있다.[80]

테오도로 연길지목구장 감준(鑑准)으로 국자가(局子街)천주당(연길하시본당)에서 발행한『휄스텔 博士의 人格養成要論』의 번역자 김연(金演)은 1930년대에 김구(바오로)와 함께 간도출신의 주요 연사로써 가톨릭 운동에 활발히 참여한 용정해성학교 교사 김연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81]

그는 머리말에서 이 소책자가 "일본 찰황시(札幌市)에서 발행하는『광명주보(光明週報)』주필 후골린・놀의 저서인『無宗教倫理에서 宗教道德에로』를 초역(抄譯)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서는 "독일 교육계의 권위자인 프리-드리크・윌헤름・휄스텔 박사의『宗教와 人格養成』에 나타난 사상을 골자로 삼아 저술한 것"이라 했는데, 실제 표제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포어스터(Friedrich Wilhelm Foerster, 1869-1966)의 대표저술 중 하나인 *Schule und Charakter*(학교와 인격)로 1907년 취리히에서 발간된 서적이다.[82]

후골린・놀은 인격양성문제와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학교교육의 목적을 '이상적 인격을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인격완성의 요건을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 첫재로 知識을 啓發하야 道理를 辨別하고 둘재로 道德을 實踐하야 萬物과 自己를 支配하고 셋재로 眞正한 宗教를 信仰하야 神의 肖像이되여 神의 完全을 代表하는 것이라하겟다.[83]

김연은 20세기 초반의 무종교논리운동과 반대운동, 사회연대설, 자연과학

80) 후골린・놀 저,『휄스텔 博士의 人格養成要論』, 金演 번역 및 발행, 연길교구장 철학박사 白 테오도로 감준(鑑准), 局子街천주당, 1930.8.
81) 장명선, 앞의 글, 2020a, 248-249면.
82) Friedrich Wilhelm Foerster, *Schule und Charakter: Beiträge zur Pädagogik des Gehorsams und zur Reform der Schuldisziplin*, Schulthess & Co., Druck und Verlag, Zürich, 1907.
83) 김연, 앞의 책, 1면

(특히 생리학설), 국가주의설, 원죄설(原罪說) 등의 결점에 관하여 포어스터의 연구에 기초한 후골린·놀의 글을 인용하면서, "현하 조선에 이상적 인격자가 드문 것은 조선의 교육제도가 지육에 편중하고 덕육을 경시한 결과요, 덕육방침이란 것도 덕육의 기초인 종교를 떠난 무종교주의를 따른 결과"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교육의 실패를 증명하는 지표이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도는 학교에서 "지육과 덕육을 병행하는 특히 진정한 종교를 기초한 교육방법에 있다"고 주장한다.[84]

이러한 주장은 곧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 가톨릭교회가 아동교육으로서 '교리 및 도리(道理)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움직임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이 시기에 조선 가톨릭교회는 가톨릭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소년(少年, 어린이, 아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신자들의 자녀에게 교리교육을 통하여 덕성을 심어주며 신앙생활로 이끌어줄 것을 강조하면서 자녀지도의 방향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0년대 조선 가톨릭 소년운동은 연길교구를 중심으로 조선국내외에 확대되고 발달하였다.[85]

(2)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

해성학교와 해성학원에서 종교교육의 방식과 수업 시간은 거의 동일했다. 먼저 학생들은 매일 오전 수업 전에 학교운동장에서 성령성가(聖靈聖歌)를 불렀다. 그런 다음 교실에 들어와서 각자 자리에 앉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도록 하였다. 기도가 끝나면 반장의 구령에 따라 교사에게 인사를 하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성체조배(聖體朝拜)를 하였고, 한 주일에 한번 모든 학생들을 위한 전례(典禮, 미사)가 있었다.[86]

학교와 본당에서 청소년 대상의 종교교육과 청소년 지도는 신부나 수녀가

84) 같은 책, 1-21면.
85) 장명선, 앞의 글, 2020b, 136-137면, 156-162면.
86) *IG*, Mai 1935, p.194;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녀회 역사자료실 엮음, 『길이 된 역사 2-2: 1931~1938년 편지』, (발행처 미명기), 2020b, 92-95면; 요한네스 마르(Johannes Mahr), 앞의 책, 846면.

담당하였다. 본당에서 성인들의 교리교육은 신부가 담당하였으나, 여성신자나 여성예비자대상의 사목과 교육은 가능한 수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신자들은 교리를 배우고 기도서를 합송하기 위해서도 한글을 배워야 했으므로, 교리교육과 한글교육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은 신부와 수녀가 한주에 2-3시간을 가르쳤다. 가장 먼저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삼종기도, 사도신경, 삼덕송과 같은 중요한 기도문을 가르치고, 교리와 은총론, 윤리 등을 가르쳤다. 주요 교리내용은 '하느님의 존재,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삼위일체와 십자성호, 영혼의 영생, 영원한 상벌' 등을 설명했는데, 이는 외교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리내용과 동일했다.[87]

사용된 교재로서는 용정본당의 경우는 당시 주임으로 있던 발뒤노 신부가 옛날식 맞춤법과 문체로 된 긴 문장의 교리서를 사용하지 않고, 독일 교리서를 번역하여 수녀들과 이 책으로 해성학교 학생들과 신자들을 가르쳤다. 돌로로사(Dolorosa Füglistaller, 1896-1989) 수녀는 "1936년 조선과 만주 남동부 지역의 주교들이 320개의 질문과 답을 실은 새 교리서를 낼 때까지 그 책을 사용하였다"고 회고했는데,[88] 당시 경성(京城)에서 발간된 『성교요리문답(聖教教理問答)』(1936)과 『천주교요리문답(天主教教理問答)』(1937)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89]

이 시기에 연길교구에서는 비신자, 이교인, 예비자, 아동, 노인, 문맹자 등을 대상으로 종교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교육방식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명월구본당의 수녀들은 미사예식, 예수와 성모의 일생, 성체성사에 관한 교리 등을 각종 잡지에서 그림을 발췌하여 놀이를 통해 쉽게 가르치기도 하였다. 수녀들이 사용한 이미지는 미국 월간 잡지도 있었지만, 대부분 스위스 프리부르(Fribourg)의 카니시우스 출판사와 네포무크 부르거(Nepomuk Burger) 신부와 플라치다 인아이헨(Placida

87)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녀회 역사자료실 엮음, 앞의 책, 2019b, 22면.
88) 같은 책, 14-15면.
89) 『성교요리문답』, 京城: 京城府明治町 天主教會, 1936; 『천주교요리문답』, 京城: 天主教會, 1937.

Ineichen) 수녀가 보내준 것을 교재용으로 만들어 활용하였다.[90]

해성학교를 비롯하여 본당에 부설된 교육기관에서는 만주국 정부에서 새 학제를 적용한 1938년 이전까지 교리와 성경 외의 다른 일반교과목도 조선어로 가르쳤다. 일본과 동맹국인 독일인 신부들이 교육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보고서에는 일본 관리들이 일제강점기 말까지도 본당 교리반과 해성학원에서 교리와 성경, 성가, 기도문 등 종교영역에서의 조선어 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후 일본 관리들이 종교 수업을 금지하자 신자들과 세례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방과후에 와야 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따로 수업을 하였다.

해성학원에서는 영세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첫 영성체를 위해서는 『천주교요리문답』에 수록된 질문에 대답할 줄 알아야 했다. 그리고 세례와 첫 영성체(領聖體)를 준비하는 이들이 외우고 바쳐야하는 기도문들은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삼종기도, 사도신경, 고백기도, 통회기도, 삼덕송, 십계명, 신자의 다섯 가지 의무'였다. 또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리 암송뿐 아니라 성품과 생활환경도 중요했다. 세례 후에 갑자기 열성을 잃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교리교사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꼼꼼히 이를 살펴보았다.[91]

선교학교에서 교육을 통한 선교는 본당사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열의가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당과 선교사들에게 다가왔다. 학부모들은 수사들이 감독하는 학교 건축공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였고, 수사들은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교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상당수가 예비신자가 되곤 하였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는 각처마다 성당, 사제관, 학교 등 모든 교회 건축물의 건립에 신자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물적, 인적지원과 협력이 보고되는 것이 특징이다.

4) 연길교구의 선교학교 현황

90)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녀회 역사자료실 엮음, 앞의 책, 2019b, 44-46면.
91) 같은 책, 39-46면, 55면.

그렇다면 상기와 같은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으로 추진된 연길교구 교육사업의 성과는 어떠하였을까? 1935년 2월 만주국의 국무원(國務院) 총무처(總務廳)에서 수행한 만주국의 종교현황 조사에서 연길교구의 관할지에 해당하는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3〉 간도지역 그리스도교 및 기타 종교현황(1935년)[92]

	천주교			개신교			기타		
	信徒	寺院	布敎者	信徒	寺院	布敎者	信徒	寺院	布敎者
길림성	8,255	16	53	3,161	20	86	12,521	10	104
빈강성	2,602	20	30	3,441	63	248	5,957	8	1
간도성	3,461	31	53	5,194	72	144	3,856	31	7
摠數	14,318	67	136	11,796	155	478	22,334	49	115

이 조사는 천주교과 개신교를 제외한 대종교, 천도교, 시천교 등 그 외의 종교를 '기타'로 처리하여 재만조선인의 종교상황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시행된 조사임을 알 수 있다.[93] 만주국 정부의 이 조사를 통해 1930년대 중반 연길교구의 교세(信者數)가 개신교파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종교를 추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94]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연길교구 선교학교의 총학생수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 총신자수는 연길교구가 개신교파와 약 3,000명가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당시 간도에서 외국인 선교사 경영의 선교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연길교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36년에 간도성만 하더라도 총인구 약 70만 명에 조선인이 50여만 명에

92) 國務院總務廳統計處 編纂, 『滿洲國年報』, 國務院統計處, 1936, 480-482면의 통계를 일부 재구성함.
93) 고병철, 앞의 책, 283-284면.
94) 개신교에서 북간도라 불리는 동만주지역의 선교는 1900년대 초부터 함경지방의 장로교회와 캐나다장로회(1925년 이후 캐나다연합교회) 선교부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1908년경 남감리회가 캐나다장로회와 거의 동시에 선교활동을 착수했다가 1909년에 선교기지협정을 맺고 철수하였다. 남만주(봉천성 일대, 길림성 남부)는 평북지방의 장로교회와 미북장로회 선교부가, 북만주(흑룡강성 일대, 길림성 북부)는 미감리회 선교부와 조선연회가 담당하였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저, 앞의 책, 189면, 193-195면).

달하여 총주민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조선인대상의 교육기관은 인구수와 교육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보통학교는 중요한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었고, 상당수의 학교들이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간도지역에 설립된 그리스도교 학교의 현황은 세 개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하나는 1930년대 중후반경 일본측(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시행한 조사로 보고서의 명칭은 '간도지방 만주 조선인 학교(満洲朝鮮人学校 間島地方)'이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14개소의 15개 사립학교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에서 캐나다장로회가 운영한 은진중학교(1919년), 명신고등여학교(1914년), 명신여학교(1914년)를 제외한 12개 교육기관이 모두 연길교구 관할 본당에서 운영한 선교학교들이다.

〈표 4〉 간도지역 외국인경영 그리스도교 학교 현황[95]

학교명	설립	위치	경영	교사/학생	비고*
①恩眞中學校	1919	龍井村	徐高堂 외	8/273	
②明信高等女學校	1914	龍井村	朴傑 외	7/115	
③明信女學校	1914	龍井村	(상동)	7/199	
계(개신교)*				22/587	
④海星學校	1921	龍井村	任竭忠 神父	10/515	용정해성학교
⑤海星支校	1926	延吉縣 六五道溝	信者 元景天	10/95	해성학교 분교
⑥大拉子海星學校	1915	和龍縣 大拉子	獨逸人 經營	3/92	1904.화룡서숙 설립 1935. 개명

95) 허청선, 강영덕 주편, 앞의 책, 300-307면에 수록된 자료(「満洲朝鮮人学校」, 南鉄社长室人事课编, 延边朝鮮族自治州档案馆藏资料)를 표로 구성함: 〈표 4〉의 14번째 학교의 위치로 일본측 조사단이 기재한 연길천주교본부는 연길 중국인 시가에 있었고, 이곳의 연길하시본당 부속학교로는 중국인 아동 대상의 연길만주인해성학교(또는 연길만주인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 이 학교의 학생수는 총 87명이었다. 또한 이 자료에 기재된 경영자 암브로시오 하프너 신부는 1931년 말부터 1940년대 상반기까지 두도구본당의 주임이자 두도구해성학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1936년에 두도구해성학교(1922년 설립)의 총학생수은 143-150명, 해성학원(1931년 설립)의 학원생은 총60명이었다. 따라서 경영자명과 학생 및 학원생 수의 통계로 비추어보아 본 자료에 기재된 '연길천주교본부 소재의 해성학교와 해성학원'은 '두도구본당 관할의 해성학교와 해성학원'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⑦明月溝海星學校	1925	延吉縣 明月溝	獨人 經營	7/400	1924.보록학교 설립 1926. 개명
⑧茶條溝海星學校	1921	延吉縣 茶條溝	獨人 經營	4/138	
⑨海星學校	1933	琿春縣	鄭默德 神父	3/169	훈춘해성학교
⑩海星學校	1921	延吉縣 北蛤螞塘	高世恩 神父	2/211	1931. 설립 합마당해성학교
⑪私立海星小學校	1931	延吉街 上市場	白化東 神父	8/394	연길해성학교
⑫朝陽學校	1908	延吉縣 八道溝	張理柱 神父	7/286	1918(1917).설립 조양하해성학교
⑬海星豫備學校 (幼稚園)	1934	延吉縣 八道溝	張理柱 神父	1/64	1931.설립, 조양유치원
⑭海星學校 海星學院	(?)	延吉天主教本部	Ambrosius Hafner	(?)/160 (?)/55	두도구해성학교 및 해성학원
계(천주교)*				55+(?) /2579	

*(?): 자료에 기재되지 않음.
*비고, 계(교사 및 학생 총수): 원사료에는 없으나 필자가 기입, 수정, 보완함.

만주국 시기의 교육기관은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일본측(조선총독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이민회사 등) 공립학교, 만주국 수립이전부터 청조 지방정부나 중화민국 군벌정부에서 설립한 학교를 만주국에서 접수해 운영한 만주국측 공립학교, 일본인・조선인・외국인 등이 설립하여 운영한 사립학교들이 있었다.[96]

만주국 식민당국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민족협화, 내선일체, 일만일덕일심을 부르짖으면서 민족 평등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교육방면에서는 조선인들에게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민족차별정책을 고착화하고 있었다.[97]

96) 윤휘탁, 앞의 글, 2016b, 172면.
97) 조선인 이민자의 격증 속에서 조선인 학교를 제대로 증설하지 않았고, 만주사변이후 조선인대상의 민족주의 성향의 학교와 서양 기독교 계통 학교들을 합병, 폐교 조치했으며, 1937년 치외법권 철폐와 맞물려 만철부속지 이외 지역의 조선인 학교들을 만주국에 이관시켰다. 그리고 만주국의 일본인 학교나 중국인 학교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입학시험을 부과하였고 학비부담을 가중시킨 차별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 교수언어로는 모든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일본어나 중국어로 제한하였고, 조선인 교육의 중점을 직업(실업)교육에 두었던 식민교육정책 등을 들 수 있

1924년부터 1932년 만주국이 수립된 직후까지 간도 및 훈춘지역의 종교계통 조선인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종교계통 학교는 전체 학교의 23-3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30년대 초반부터 만주에서 중국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반일감정과 중·일간의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계통의 학교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그리스도교 계통의 학교는 대부분 서양 선교사들의 본국과 소속 선교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설립,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정치 및 교육정책상의 영향을 덜 받았던 것이다.[98]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독일 베네딕도회의 선교학교에서도 1938년 신학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본 관리들의 묵인 하에 모든 교과목을 조선어로 교수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다른 두 개의 자료는 1935년 만주국의 민정부(民政府) 총무사(總務司)에서 시행한 조사로 간도성 4개현(연길, 화룡, 왕청, 훈춘)에 조선인들이 경영한 그리스도교계의 사립학교 21개교와 외국인 선교사들이 경영한 16개 사립학교의 현황이다.[99]

다(윤휘탁, 같은 글, 195-196면).

98) 윤휘탁, 같은 글, 169면.

99) 다음 사료의 표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통계를 재인용함: 民政府總務司調查科, 『在滿朝鮮人事情』, 新京: 民政府總務司調查科, 1935, 217-219면.

〈표 5〉 북간도 조선인 경영 그리스도교계 사립학교 조사(1935년 5월)

경영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		계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장로교	12	221	7	185	-	-	-	-	19	406
감리교	3	254	-	-	1	127	2	125	6	506
안식교	1	133	1	160	-	-	-	-	2	293
천주교	5	265	1	(?)	-	-	-	-	6	265
계	21	873	9	345	1	127	2	125	33	1,470

〈표 6〉 북간도 외국인 경영 그리스도교계 사립학교 조사(1935년 5월)

경영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외국인	조선인	계
耶蘇教加奈陀長老派	3	415	-	21	21

〈표 4〉와 〈표 6〉의 학생수 자료를 통하여 1930년대 중반 외국인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학생의 62-77%이상이 연길교구에서 운영하는 선교학교의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물론 보통학교에 비해 진학률이 낮은 중고등학교 2개교의 학생수가 반영된 수치이지만, 한편으론 연길교구의 선교정책이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모국어(조선어)로 교수하면서 최대한 많은 취학연령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계몽교육과 포교에 주력했던 선교정책의 결과이자 성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곳 선교지에서 학교는 정말 성공적이에요. 국립 초등학교만큼 명망을 얻어 학생도 많은데, (…)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무례하고 거칠며 무엇보다도 경박해요. 심지어 볼셰비키 정신에 전염되기까지 했지요. (…) 나중에 현지인 수녀들이 교사가 되어 도울 수 있게 되면 나아질 거예요. 이들은 오직 하느님의 보상을 바라면서 일하고, 아이들의 정신을 가르치는 일 외에 그들의 영혼도 보살피니까요.[100]

> 대체로 국가가 승인하는 34개 학교에는 약 5,000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지원에는 2,000명의 신자들과 1,000명의 남녀 학생들이 있는데, 시민 20%가 우리 가톨릭 선교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101]

1935년에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조선 각 교구의 보통학교 수를 비교하더라도, 연길교구가 가장 많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파리 외방전교회 관할의 경성교구에서 4개교와 대구교구에서 2개교, 메리놀회 관할의 평양교구가

耶蘇教南監理派	1	50	-	2	2
天主教	12	1,265	2	29	31
계	16	1,730	2	52	54

100)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녀회 역사자료실 엮음, 앞의 책, 2020b, 91-92면(1937. 설날, 명월구에서 리타(Rita Hess, 1931.11.6. 파견됨) 수녀가 스위스 본원에 보낸 서한).

101) 이 글은 1930년대에 테오도로 지목구장이 스위스 캄 성 십자가 수녀원 아델하이드 원장 수녀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제작된 소책자(*HEILIG KREUZ SCHWESTERN AUS CHAM IN MANCHUKUO*(만주의 캄 성 십자가 수녀들))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이다(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역사자료실 엮음, 앞의 책, 2020b, 121면, 125면). 인용문에 언급된 '지원'은 연길수녀원의 첫 분원(分院)인 용정분원(용정하시, 1933.3.)을 가리킨다. 언급된 학생수는 각 본당에서 운영하는 선교학교 및 분교와 보조교육기관의 학생수를 합한 수치로 보인다.

3개교, 베네딕도회 관할의 원산교구에서 6개교, 연길교구에서 9개교로 집계된다.[102]

4. 맺음말

1930년대 중반 만주국 정부는 천주교를 만주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연길교구 각 본당 부속학교인 해성학교는 간도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조선인 대상의 그리스도교계 사립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였다.

연길교구는 1939년도 간도지역에서의 복음화율이 1,74%로 당시 조선의 전체 7교구 중에서도 가장 교세가 컸던 교구였다.[103] 이 교구는 해방 직전까지 19개 본당과 157개 공소가 있었고, 1946년에 연길수도원이 폐쇄되기 전까지 국가공인 초등학교 9개교와 그 외 소학교 16개교를 운영하며 5,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선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104]

그렇다면 베네딕도회가 간도에서 교육사업과 가톨릭 운동을 통해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연길교구 가톨릭 운동 위원이었던 암브로시오 신부는 조선에서 가톨릭 소년소녀단체들의 활동이 서구 그리스도교 국가들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회고하면서 일차적인 원인을 '정치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105] 이는 교육계의 시각에서 본다면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식민지상황을 지적한 것이고, 본고에서 지적하였듯이 상대적으로 제재가 적었던 만주에서와는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102) 노영택, 「일제하 한국 천주교회의 교육사업 연구」(2), 『한국교회사논문집』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Chronik von Yenki-West (Mai 1935 bis Mai 1936)", *Chronik 1937*, p.3;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 앞의 책, 18면. 만주국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연길교구 관할의 9개 보통학교(6년제)의 교명은 본고의 '〈부록〉 연길교구 관할의 정부(만주국 문교부)인가 보통학교(1936년)'를 참조할 것.

103) 관련 글은 다음을 참조할 것: 장명선, 앞의 글, 2020a, 258-259면.

104)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32면.

105) Ambrosius Hafner, Sturm im Lande der Morgenstille, Typoskript(미간행 타이핑 원고), 상트 오틸리엔 대수도원 문서고 소장, (날짜 미기재), p.56.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만주국 수립 전후, 연길교구의 선교활동은 선교지와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역민들의 서구 근대문화와 모국어 교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시작된 일종의 '자선사업'이었다.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은 간도에서 교회 설립과 동시에 부속학교를 신설하면서, 본당관할의 공소에까지 해성학교 분교와 해성학원, 유치원 등과 같은 보조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선교학교에서는 성경과목을 비롯하여 모든 교과목을 조선어로 가르치면서 신교육과 신문화 교수를 통하여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그리스도교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교육방침하에 종교교육을 통하여 지육과 덕육을 병행하는 교육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조선인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이다.

연길교구는 또한 해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톨릭 소년운동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었고, 학생들을 모든 교구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일체감이 싹트고 연대감이 형성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각 본당에서는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신자들을 일치·단합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각처에 청년회, 부인회, 소년소녀회를 조직하여 가톨릭 운동을 조연(調練)시키면서 신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선교의 필요조건으로 교육하였다.[106]

이 움직임은 곧 로마교황청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으로 추진된 가톨릭 운동과 독일로부터 도입한 전례운동의 범주에서 작동하여 발전하였고, 동수도회의 원산교구를 비롯한 조선 교구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106) 間島 全元燮, 앞의 글, 908면.

▮ 附錄

연길교구 관할의 정부(만주국 문교부)인가 보통학교(1936년)[107]

학교명	설립년	경영 본당	교사/학생	비고
①大拉子海星學校	1904	간도성 화룡현 대랍자본당	3-4/ 98-101	1904.5.14. 和龍書塾 설립 1905. 德興學校로 개명 1932.9. 王心學校로 개명 1935 말. 대립자해성학교로 개명, 1936. 졸업 17회, 졸업생 150명
②龍井海星學校	1921	간도성 연길현 용정본당	9-10/ 507-582	1905(또는 1906). 三愛學校 설립 1921.8.29. 용정해성학교(4년제) 설립 1936. 졸업 13회, 졸업생 250명
③朝陽河海星學校	1918	간도성 연길현 팔도구본당	6/286	1918(또는 1917).1.11. 朝陽學校 설립 1936. 팔도구해성학교와 병기 1936. 졸업 14회, 졸업생 151명
④茶條溝海星學校	1921	간도성 연길현 차조구본당	4-5/ 149-155	1921. 조양학교 분교 설립 1935. 다조구로 학교이전, 개명
⑤頭道溝海星學校	1922	간도성 연길현 두도구본당	4-5/ 143-150	1922.9.1. 설립 1936. 졸업 4회, 졸업생 30명
⑥明月溝海星學校	1924	간도성 연길현 명월구본당	6-7/ 343-367	1924.10.5. 保祿學校 설립 1926.4.6.명월구해성학교로 개명 1936. 졸업 6회, 졸업생 45명

107) 이하의 사료집, 보고서, 통사, 글을 참고하여 표로 구성함: 허청선, 강영덕 주편, 앞의 책, 300-307면; X生, 앞의 글, 30-39면; 李東九, 「間島가톨릭傳來 四十週年 祝賀會 參觀記」, 『가톨릭청년』 1936년 10월호, 40-45면; 金炳燦, 앞의 글, 49-55면; 한흥열, 앞의 글, 68-72면; 頭道溝 主任 韓神父, 앞의 글, 896-907면; 間島 全元燮, 앞의 글, 908-929면; 隱北生, 「馬賊, 共黨과 間島教會」, 『가톨릭연구』 1936년 9월호, 930-936면; 金殷鼎, 「묵은 日記에서: 北國에서 北國으로」, 『가톨릭연구』 1936년 9월호 976-982면;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 앞의 책, 59면; *Chronik; Tatsachenbericht aus dem Missionsgebiet Yenki (Mandschurei)*, St. Ottilien, Nummer 2/1954; *Gründungschronik Sinchan* (9.5.1936-1.5.1938); *IG*; *MB*; Johannes Mahr, *Aufgehobene Häuser: Missionsbenediktiner in Ostasien* (Teilband 2: Die Abteien Tokwon und Yenki), Sankt Ottilien: EOS, 2009.

⑦延吉海星學校	1931	간도성 연길현 연길상시본당	6-7/ 343-416	1931.2.21. 설립 1936. 졸업 1회, 졸업생 31명
⑧蛤蟆塘海星學校	1931	간도성 연길현 합마당해성학교	3-4/ 104-150	조선인·만주인(중국인) 공학
⑨琿春海星學校	1934	간도성 훈춘현 훈춘본당	3/ 108-180	1925.7. 광진학교 설립 1934.4.1. 훈춘해성학교 설립 1935.3.23. 해성학교 제1회 수료식

▮ 참고문헌

『가톨릭少年』
『가톨릭朝鮮(『가톨릭연구강좌』, 『가톨릭硏究』)』
『가톨릭靑年』
『경향잡지』
『天主敎會報』
『가톨릭평화신문』
『동아일보』
Chronik : Chronik der Kongregation von St. Ottilien (bis 1923 handschriftlichhektographiert verbreitet, seither in Jahresbänden gedruck)
Tatsachenbericht aus dem Missionsgebiet Yenki (Mandschurei), St. Ottilien, Nummer 2/1954.
Gründungschronik Sinchan (9.5.1936-1.5.1938)
IG : Instituts-Grüße (Haus-Zeitschrift des Klosters Heiligkreuz in Cham)
MB : Missionsblätter von St. Ottilien

강명숙,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 체계와 초등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사학연구』 20, 교육사학회, 2010, 1-24면.
고병철, 『일제하 재만 한인의 종교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2009.
國務院總務廳統計處 編纂, 『滿洲國年報』, 國務院統計處, 1936.
노영택, 「일제하 한국 천주교회의 교육사업 연구」(2), 『한국교회사논문집』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241-265면.
다나카 류이찌(田中隆一), 「일제의 '만주국 통치와 재만한인' 문제」, 『만주연구』 1, 만주학회, 2004, 89-108면.
民政府總務司調查科, 『在滿朝鮮人事情』, 新京: 民政府總務司調查科, 1935.
박주신, 「間島韓國人民族敎育機關의 敎科課程」, 『間島韓人의 民族敎育運動史』, 아세아문화사, 2000.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은혜의 60년: 1931-1991』, 서울: 부산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1995.
선지훈, 「'선교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선교 활동」, 『교회사연구』 2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61-96면.
성 베네딕도회 오딜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분과 위원회 편집, *NECROLOGIUM*, 성 베네딕도회 왜관 성 마오로 뽈라치도 수도원, 2007.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녀회 역사자료실 엮음, 『길이 된 역사』 vol.1-2, (발행처 미명기), 2019-2020.
요한네스 마르(Johannes Mahr); 왜관수도원 옮겨 엮음, 『芬道通史』, 칠곡: 분도, 2009.
윤병훈,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가 한국 근대교육기관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철학 및 교육사 전공 박사학위논문, 2008.

윤용복,「간도지역 한국 천주교회의 설립과 활동」,『간도와 한인종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54-177면.
윤휘탁,「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동북아 역사재단, 2007.
_____,「만주국의 교육 이념과 조선인 교육」,『中國史硏究』104, 중국사학회, 2016a, 175-207면.
_____,「만주국의 조선인 학교 실태와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한국민족운동사연구』8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b, 161-203면.
이형우 펴냄;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편,『눈먼 이들에게 빛을: 1909-2009 성 베네딕도회 오딜리아 연합회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 화보집』, 분도: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2009.
이유재,「식민지 조선에서 분도회의 지식생산과 교육」,『교회사연구』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267-284면.
이훈구,『滿洲와 朝鮮人』, 平壤: 崇實專門學校經濟學硏究室, 1932.
장명선,「일제강점기 延吉教區의 가톨릭 운동—靑年會를 중심으로」,『서강인문논총』57,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a, 227-266면.
_____,「1930년대 延吉教區의 가톨릭 少年運動—탈시시오회(Tarsitiusvereins)를 중심으로-」,『서강인문논총』59,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b, 129-173면.
전병구,「전라북도 천주교의 근대 초등교육 연구」, 전주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연변문사자료: 종교사료전집』제8집,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7.
조현범,「분도회 선교사들의 한국 문화 연구」,『교회사연구』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167-222면.
조효임,「안드레 에카르트와「코리아 심포니」」,『음악과 민족』8, 민족음악연구소, 1994, 102-133면.
주성도,『하느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성도 신부 자서전』, 분도출판사, 1993.
채현석,「만주지역의 한국인 교회사」,『한국기독교와 역사』3, 기독교문사, 1994.
채휘균,「간도지역 기독교 학교 연구」, 한신대 실천신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河村巖,『在滿基督教現勢槪況』, 民生部厚生司2, 1940.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한국가톨릭대사전』v.9, v.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200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함경도천주교회사 자료집 제2집: 원산교구 연대기』,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저,『북한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허청선, 강영덕 주편,『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1, 연변교육출판사, 2002-2005.
후골린・놀 저; 金演 번역 및 발행; 연길교구장 철학박사 白 테오도로 감준(鑑准),『휄스텔 博士의 人格養成要論』, 局子街천주당, 1930.8.

"DIVINI ILLIUS MAGISTRI", LETTERA ENCICLICA DI SUA SANTITÀ PIO PP.XI, SULLA EDUCAZIONE CRISTIANA DELLA GIOVENTÙ, 1929.12.31.
Appelmann, Balduin, *Erinnerungen an Zeit und Geschehen in der Mandschurei 1929-*

1952, Aufgeschrieben zur Jahreswende 1972/1973.

Breher, Theodor, *Erntegarben vom Acker der Yenki-Mission*, Yenki, 1937.

Doppelfeld, Basilius(Hrsg.), "Wichtige Probleme der Heidenbekehrung", *Mönche und Missionare*, Münsterschwarzach, 1988, pp.55-82.

Foerster, Friedrich Wilhelm, *Schule und Charakter: Beiträge zur Pädagogikdes Gehorsams und zur Reform der Schuldisziplin*, Schulthess & Co., Druck und Verlag, Zürich, 1907.

Hafner, Ambrosius, Sturm im Lande der Morgenstille, Typoskript, 상트 오틸리엔 대수도원 문서고 소장, (날짜 미기재), pp.1-57.

Jukas, Isabella,「일제 하 만주지역에서의 독일 상트 오틸리엔 베네딕트회 수도원의 활동—교육사업을 중심으로, 1921-1945년—」, 서울대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7.

Maas, Anthony, "The Name of Mary", *The Catholic Encyclopedia*, Robert Appleton Company, 1912.

Mahr, Johannes, *Aufgehobene Häuser: Missionsbenediktiner in Ostasien* (Teilband 2: Die Abteien Tokwon und Yenki), Sankt Ottilien: EOS, 2009.

Olivetan Benedictine Sister's Priory(Korea. 부산),『은혜의 60년』, 부산: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1991.

Renner, Frumentius (Hrsg), *Der fünfarmige Leuchter* (Band I), EOS Verlag Erzabtei St. Ottilien, 1971.

P. GREGORIUS STEGER, 30.6.1932., 가족소장 서한.

P. THEODORUS BREHER an P. ADALRICUS MUHLEBACH, 5.5.1929., 우츠나흐 수도원(Uznach Abbey) 문서고 소장

P. THEODORUS BREHER an Sr. AMARANTHA BREHER, Fortsetzung des Briefes vom 26.9.1922., Kuktajaka 28.9.1922., 상트 오틸리엔 대수도원 문서고 소장.

Stenz, Georg, "Zur Missionsmethode und -lage in China", *Zeitschrift für Missionswissenschaft und Religionswissenschaft*, Jg. 15, Münster, 1925, pp.196-206.

【Abstract】

The educational movement of the Diocese of Yenki —Focusing on the School of the star of the sea—

Jang, Myung-Seon*

In the 1930s, Catholicism was the most influential religion in Kando. The proportion of evangelization of the Diocese of Yenki was 1.74%. Its influence of a religion was the most conciderable of all the seven dioceses of Korea. Their mission schools have taught the most number of students of any other western mission school in Kando.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were like something of a philanthropic enterprise. Because they started by accepting the request of local people to teach them for literacy. In the missionary schools of the Diocese of Yenki, the missionaries taught all the disciplines and the Bible in Korean. They hoped to cultivate Christians with modernized value judgment through modern educations and through their teachings of modern culture.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policy of protecting children from communist ideology, the Benedictines chose an educational way to go hand in hand with the teaching of intellectual knowledge and with moral educa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Benedictine missionary schools were able to obtain the favor of the parents of Korean pupils.

Keywords: Benediktinerkongregation von St. Ottilien(O.S.B.), Diocese of Yenki, Manchuria(Kando), School of the mission, School of the star of the sea, Educational movement.

접수일: 2022.03.31.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19.

* Teacher, French language, LE MONDE.